

국민연금 개혁, 미래세대 부담 줄이려면

☑ 급여구조개선 ☑ 부과방식 전환 ☑ 운용수익률 증대

2057년 적립기금 소진 대안 지적
젊은세대 대한 이해 노력 필요
사각지대 해소해 안정성 보장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젊은 세대에게 소득 재분배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함께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2057년 적립기금 소진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중립연계계획안'에는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유지(1안) ▲기초연금 30만→40만원 인상(2안) ▲보험료 12%↑·소득대체율 45%↑(3안) ▲보험료13%↑·소득대체율 50%↑(4안) 등 총 4가지 방안이 담겼다.

김 교수는 "2안은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적립기금을 증가시키고 고갈연도를 연장하는 3, 4안은 미래세대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적립기금 고갈시 연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희주 기자

금보험료는 부과방식 비용률로 전환되는데 2060년 부과방식 비용률은 26.8%, 2088년에는 28.8%로 상승된다. 3차 재정추계시 2060년은 24.1%, 2088년은 23.6%였던 것에 비하면 추정치가 증가했다.

특히 합계출산율을 반영하면 심각성은 더욱 높아진다. 2017년 출산율 1.05명으로 가정할 경우 보험료율은 2060년 29.3%, 2088년 37.7%로 높아져야 한다. 2080년을 기준으로 3안은 41.3%, 4안은 44.9%에 달한다.

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3, 4안으로 갈 경우 2060년에는 부과방식 비용률은 40%를 육박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가능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2안에 따르면 부과방식 비용률은 30% 정도로 올라가게 된다. 정부 예산은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 시 20조1000억원에서 26조8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김 교수는 저부담·고급여구조 개선, 부과방식 전환, 기금 운용 수익률 증대,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대안으로 꼽았다.

현행 국민연금의 세대별 수익비를 보면 전 세대, 소득계층의 수입비가 1.0을 초과한다. 이는 저부담·고급여구조를 낳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부양비율은 100%를 넘어섰다. 정부가 노인 1명에게 100만원을 보장한다고 하면 근로 세대의

월급에서 100만원 이상을 떼어야 한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인구가 끊임없이 팽창하면 가능하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는 사실 국민연금을 가입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나라의 2050년대 인구부양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40% 수준에 달하는 만큼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헌경 영국 요크대 박사는 "기초연금이 사실상 0층 연금, 국민연금이 1층 연금으로 기능하는 현 연금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재정안정화를 추구하는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의 삭감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1안과 2안은 장기 재정안정성 추구를 위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대안만 존재하기 때문에 진정한 개혁안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장기 재정안정성은 외면한 채 개혁의 정치·사회적 수용성에 과도하게 초점을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더 내고 더 받는 정책대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면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저소득층을 위해 보험료 국고지원 확대를 꾀하고 기존 크

레딧 제도를 확대해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특징인 강제성, 세대 내 소득 재분배에 대해 젊은 세대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장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이후 최소 24%에서 33.5%의 보험료 납부가 필요하다는데 이번 정부의 개편안에 기금 소진 이후의 대안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과연 청년과 미래세대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편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송 회장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25년 동안 보험료를 냈을 경우 100만원을 넘긴 가입자는 250만원 소득자와 400만원 소득자에 불과했다. 이는 한 달에 100만원, 250만원, 400만원 소득자가 25년 동안 보험료를 냈을 경우 65세부터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수령액을 가정한 수치다.

송 회장은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소득대체율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은 되돌려 받을 수만 있다면 지지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대체율 중심보다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구에 집중해 노후 보장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일상으로 나온 '골프웨어'... 스타일 뽐뽐 “희귀난치질환 환자에 대마 처방 허용 한계”

기능 높이고 디자인 업그레이드
다양한 스타일 연출 가능해 인기



한세엠케이 LPGA골프웨어. /LPGA골프웨어

골프웨어가 일상으로 침투했다. 스포츠 브랜드들의 '탈(脫) 운동복' 흐름에 발맞춰 필드 밖 패션까지 책임지고 있는 것. 기능과 디자인은 업그레이드 되고, 마케팅은 한층 다채로워진 것이 특징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골프웨어 브랜드들이 트렌드를 겨냥한 신제품 출시에 공 들이고 있다. 갈수록 패션 트렌드에 민감해지는 골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패션업계 전반이 침체된 분위기를 지속하고 있기에, 생존을 위해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기존에 고수해오던 스타일을 벗어나,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한세엠케이의 골프웨어 브랜드 LPGA 골프웨어가 대표적이다. LPGA골프웨어는 이중 소재를 사용해 기능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한 하이브리드 스포츠웨어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LPGA골프웨어가 지난 12월 기준 2018 F/W 아우터 판매를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서도 하이브리드형 자켓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겨울 출시한 하이브리드형 제품 'TURN-PRO SWING 구스다운 점퍼'의 경우, 여성용과 남성용 제품이 각각 74%, 70%의 판매율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방풍 기능이 우수한 우븐 소재에 스트레치 기능이 탁월한 저지지를 매치해 활동성을 강조했고, 구스다운 충전재를 사용해 보온성을 높였다. 디자인은 불필요한 장식적 요소를 배

제해 모던하게 완성했다.

롱패딩 스타일로 출시된 '하이퍼히트 유니섹스 룬다운'도 60%대 판매율을 넘겼다. 넉넉한 기장감으로 겨울 필드는 물론, 캐주얼한 평상복 차림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기모 원단 및 발열 안감 '히트세이버(HEAT-SAVER)'가 더해져 보온성이 높고, 투웨이 지퍼, 밑단 옆 트임을 통해 활동성을 높였다.

와이드앵글이 지난해 11월 선보인 '리버시블 무스탕 재킷'도 변화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와이드앵글 측은 해당 제품 출시 당시 "이번 신제품은 골프웨어로서 기능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브랜드 자체 '패션 DNA'를 강화하기 위해 개발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리버시블 무스탕 재킷은 무스탕 소재를 접목해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강조한 제품이다. 특히, 안과 밖을 뒤집어 양면을 모두 활용해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돼 활용도가 높다. 양귀족, 리얼 양털로 제작돼 보온 효과도 뛰어나다. /김민서 기자

의료용대마운동본부 기자회견
처방 간소화·범위확대 시급

올해 3월부터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목적에 한해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허용됐지만, 처방 범위가 한정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마 단속 48년 만에 이뤄진 마약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처방 및 품목을 규제해 환자의 불편이 여전하다"며 "대마성분 의약품 처방의 간소화와 범위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국내에 대체 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해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은 오는 3월 12일부터다.

운동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령에서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4종으로 처방범위를 한정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수입해야 하는데 적잖은 시일이 소요되는 데다 한국희귀질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어 시급한 환자들이 적시에 쓰기 어렵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환자들의 수요가 높았던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의 국내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피디올렉스는 대마 오일로 불리는 칸나비디올(CBD) 성분 의약품이다. 대마오일의 경우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의 뇌 질환, 신경 질환에 효능이 입증됐다. 의료용 대마는 폐를 통해 흡수하는 것 이외에도 알약, 오일, 연고, 패치, 스프레이, 드링크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한국은 마약법과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가 묶여 있었다.

운동본부 강성석 대표는 "최근 들어 여러 나라가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환자 치료용으로 대마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일본은 이미 대마오일을 유통 중에 있다"며 "대마 전초(全草)와 성분이 같은 '에피디올렉스'는 연간 약 3600만원의 수입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내 처방이 가능해 진다면 처방도 간편해지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운동본부의 주장을 지지한다며, 합법적인 범위에서 대마 전초 처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롯데호텔제주에 울려 퍼지는 '나눔의 음악'

27~29일 '뮤직 페스티벌 인 제주'

롯데호텔제주는 문화 예술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2019 뮤직 페스티벌 인 제주'를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제7회 롯데마스터 클래스'와 '제6회 사랑 나눔 음악회'가 열린다. '제7회 롯데마스터 클래스'는 문화 예술 교육의 기회를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음악 꿈나무들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국내외 저명한 음대 교수진을 초청하여 무료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하는 마스터 클래스는 제주도내 학

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름, 나이, 연락처, 희망일자를 우선순위로 선착순 접수 받는다. 전공 악기는 바이올린과 첼로다.

제주도민을 위한 무료 클래식 공연인 '제6회 사랑 나눔 음악회'도 마련된다. 29일 오후 7시 30분부터 연회장에서 열리는 자선 음악회는 영화 '폰레프의 연인들' OST로 유명한 첼로 소나타 작품(Sonata for cello solo)과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순간'을 비롯해 대중들에게 익숙한 명곡들을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롯데호텔제주 전경. /롯데호텔

/김민서 기자 min0812@